

광양 백운산, 무분별한 도로 개설·난개발

도심에서 바라본 산, 5년 파헤쳐진 흙투성이 실태 드러나

백운산국립공원지정추진준비위, 난개발 중단및 사과 촉구



전남 광양시 백운산을 가르는 임도 개설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백운산 형제봉 국유임도 개설

과 백운암 작업임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림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5년내내 파헤

쳐지고 있는 백운산의 실태를 살핀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대남부학술림이 관리하는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뒷산에 지난 4년간 6.14km의 임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형제봉 산허리를 동강년 임도 3km를 차도처럼 넓게 공사해 도심에서 바라봐도 참혹한 흙투성이 백운산의 실상이 드러난다.

게다가 옥룡면 동곡리에도 백운암을 오가는 작업임도 1.67km를 개설하고 포장했으며 아래쪽 입구에서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서울대남부학술림이 소유권

변경과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문제로 10년 동안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도 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임도 개설과 난개발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어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임도 개설 문제는 당연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정책을 따르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2019년 백운산 한재를 넘는 도로 개설 문제로 지역사회의 지루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당시의 한재 도로 개설은 국립공원 지정의 방해 요인으로 인식되어 계획을 취소했었다"고 밝혔다.

백운산은 식물 종이 950여 종에 이르는 동·식물의 생태 보고로 환경부로부터 '생태 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됐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10곳 적발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린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일제점검을 벌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10건이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5개반 17명의 단속반을 투입,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8건은 주류 판매, 1건은 주류 보관, 나머지 1건은 뮤비방과 유사한 영업용 한 노래연습장 등이다.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 1081곳, 뮤비방 94곳, PC방 1078곳, 게임장과 오락실 246곳, 멀티 DVD방 19곳 등이다.

박항복지건강국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불법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02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21명, 격리중인 인원은 120명이다.

마스크 착용 안내한 택시기사 때린 60대 취객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택시기사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폭행)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했고, 마스크 착용을 여러 차례 요구한 B씨와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3일부터는 택시·버스·지하철 이용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2000만원 훔친 네팔인 구속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따로 보관한 돈을 훔친 네팔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택 우편함에 보관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네팔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광산구 주택 2곳에서 2차례에 걸쳐 현관 우편함에 놓인 현금 2000여만 원을 훔친 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교통비를 제외한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에게 훔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실내 특정 장소에 두면 경찰관이 방문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순천 주택 화재...9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2일 오후 6시20분께 전남 순천시 월등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 현장에서는 A(9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도 모두 타 무너져 내렸다.

소방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는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화와 인명 구조를 병행했다. 그러나 화마에 주택 건물이 무너져 구조 통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잔해 사이에 남은 잔불을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 등 낚시어선 잇따른 침수에 '긴급출동'

여수해경 경비함정, 현장서 배수 작업...해양 오염 없어

전남 여수 해상에서 낚시어선 침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3일 오전 9시 53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0.5해리 해상에서 여수선적 낚시어선 A(4.79t·승선원 7명)호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A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했다.

해경 경비함정 등은 A호에 도착해 인명을 구조한 뒤 기관실에 차오른 발목 높이 정도의 바닷물을 배수 장비를 이용해 제거했다.

배에는 경유 8000l가 실려 있었지만,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엔진 쪽 해수 펌프 배관에 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A호를 예인해 거문도에 입항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19분께 고흥군 녹동항에서 정박 중인 고흥선적 낚시어선 B호(7.93t)가 우현 45도 기울어져 침수됐다.

이 배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B호의 추가 침수를 막기 위해 계류줄 보강작업을 한 뒤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경유 10000l가 실렸지만, 바다로 흘러들지는 않았다.



여수해경관계자는 "2건의 침수사고는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지만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경찰, '깜박이 경광등' 부착 활동 호응

야간 이륜차사고예방 미니경광등 제작·부착

함평경찰서(서장 정환수)는 지역 특성상 주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이륜차를 이용하는 고령운전자와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특히 야간 이륜차사고예방을 위해

'깜박이 경광등'을 구입·부착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도 기준 함평관내 이륜차 보유현황은 약 5,003대이며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고가 5건으로 전체사고의 83% 차지하고 있으며, 이륜차 부착용 미니 '깜박이경광등' 1차적으로 100개 제작·부착 계획으로 이미 제작에 들어갔으며 함평경찰서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